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799천km ²	GDP	146 억 달러(2012년)
인구	22.5 백만명(2012년)	1인당 GDP	652 달러(2012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etical (MT)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8.37(2012년)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2.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FDI의 유입이 급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양호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당 GDP가 652달러('12년)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프라구축,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GDP 대비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임.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빈부격차 심화와 1당 장기집권으로 인한 누적된 불만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 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11년 모잠비크 경제는 농업, 광업, 운송업 등의 호조와 자원 부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FDI 유입규모(억 달러) : 5.9('08) → 8.9('09) → 9.9('10) → 20.9('11)

- 모잠비크는 이미 투자가 진행중인 Moatize 석탄 개발 프로젝트, 최근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초대형 가스전 등으로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1월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량 감소, 수송 인프라 파괴 등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나, 잇따른 가스전 발견에 따라 FDI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년과 비슷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17년에는 탄광업 부문의 성장과 수송 인프라개발 투자 활성화에 따라 8%대의 성장이 전망됨.

□ 대규모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모잠비크는 재정지출의 약 40% 가량을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꾸준한 경제성장, 광업 부문 세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원조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보건과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6.8	6.3	6.8	7.1	7.4
재정수지/GDP	-2.5	-5.5	-3.7	-4.5	-4.4
소비자물가상승률	10.3	3.3	12.7	10.4	3.0

자료: IMF, EIU.

□ 홍수 피해로 2013년에 물가상승 압력 심화

- 2010년 한때 12.7%까지 급등하며 유혈시위를 야기하였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 식품가격의 하락 등으로 2012년에 3%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1월에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와 인프라 손상에 의한 운송 차질 등이 심각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대중교통 운임 인상, 메티칼(Metical)화의 평가절하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원 부문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외부 충격에 취약

- 최근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자원 부문 개발을 위한 FDI 유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국제적인 자원수요 감소 또는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함.
- 과거 수출 품목은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에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원 부문의 개발로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이 총수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음.

-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등 산업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광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 모잠비크는 다양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랜 식민지 경험과 내전으로 인한 탐사 미실시,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현재 채굴되고 있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철,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의 자원 또한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주요 외국인 투자 광업회사로는 남아공의 Anglo-American, Southern Mining, 호주의 BHP Billiton, 브라질의 CVRD, 영국의 Pan African resources 등이 있음.
- 2011년에 약 16억 달러가 투자된 Moatize 석탄 광산의 채굴 개시로 석탄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대두될 전망이며, 2016년경에는 현재의 최대 수출광물인 알루미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 초대형 가스전의 잇따른 발견으로 신흥자원부국으로 부상

- 모잠비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12년 기준 126억^m³이며, 이는 아프리카 7위에 해당함. 현재 중동부 내륙의 모잠비크 분지(Mozambique Basin)에서 약 2만 톤의 가스를 생산하여 이 중 97%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고 있음.
- 또한 2005년부터 미국의 Anadarko Petroleum社, 이탈리아의 ENI社 등 세계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시추작업을 계속한 북서부 해양지역 로부마 분지(Rovuma Basin)의 제1, 4광구에서 2011년~2012년에 걸쳐 대규모 가스전이 확인되며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음.
- 초대형 가스전의 연이은 발견으로 신흥 자원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 투자 유입 예상금액은 6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액화(Gas-to-Liquid),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LNG 수출을 위한 설비 투자 본격화 등 연관산업 발전은 모잠비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긴축 통화정책 추진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2011년부터 통화 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로 2012년 3%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도 정부는 전년도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통화 공급량이 다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다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광업부문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 정부는 광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채굴산업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기준인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가입을 준비하여, 2012년 10월에는 규정 준수를 달성(achieving compliance)하였음.
- EITI 가입 요건은 투자회사의 채굴산업 관련 지출의 내역과 이들로부터 수령한 정부의 모든 수입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가입이 승인될 경우 국제사회에 자원 부문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임.

□ 빈곤 감축, 고용창출 산업의 육성, 인프라 개선 등 정책 추진 계속

- 정부는 5개년 발전 전략(2010~14년)에 따라 빈곤 감축과 농업, 어업, 관광업, 운송업을 포함한 주요 고용창출 산업의 육성, 자원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세부목표로는 빈곤율 감소(54.7%→42%), 연간 경제성장률 8% 달성, 남북(North-South) 연결 고속도로(750km) 완공, 전기 생산능력 증대 위한 발전소 건설*, 농촌지역 물 접근성 증대(52%→69%) 등이 있음.

- * Mpanda Nkuwa 1수력발전소(1,500MW), Cahora Bassa north 수력발전소(1,245MW), Moatize 1화력발전소(600MW), Benga 1화력발전소(500MW) 건설
- o 농업 부문의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19년 645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Sofala, Manica, Zambezia주에 관개지(irrigation land)를 6.6만ha에서 11.3만ha로 두 배 넓히는 'National Irrigation Strategy'를 추진하고 있음.
- o 정부는 또한 IMF의 PSI(policy support instrument)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관리, 외채 관리 전략 수립, 금융 부문 개혁 등도 추진하고 있음.
 - IMF는 2011년 5월 두 번째 PSI 리뷰에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달성, 신중한 유·무상차입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 o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지나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시장의 비효율성 등 열악한 기업환경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기업환경 개선작업의 진행이 미흡한 상황임.
- 세계은행의 2013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185개국 가운데 146위를 기록, 2012년(139위)보다 7단계 하락하였음.

3. 대외거래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 o 상품수지는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 확대로 만성적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o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입 및 관광 수입 증가, 남아공 등 인근 국가 거주 모잠비크 인력의 송금액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입액 급증, Mega Projects 이익금 송금 및 대외이자 지급액 증가 등에 따라 2008~12년에 경상수지 적자기 규모가 GDP의 11~12%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1,179	-1,220	-1,113	-1,615	-1,705
경 상 수 지 / GDP	-11.9	-12.2	-11.7	-12.9	-11.6
상 품 수 지	-990	-1,275	-1,179	-1,411	-1,704
수 출	2,653	2,147	2,333	2,776	3,791
수 입	3,643	3,422	3,512	4,187	5,495
외 환 보 유 액	1,578	2,099	2,159	2,469	2,770
총 외 채 잔 액	6,093	6,430	6,117	6,426	7,539
총 외 채 잔 액 / GDP	61.5	64.3	64.3	50.5	53.1
D S R	17.9	16.9	32.4	11.7	15.5

자료: IMF, EIU, OECD

□ 홍수 피해로 인한 수출 감소

- 2013년 1분기에 동국 남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인프라가 파괴되어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과 전력의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였음.
- Tete주 중앙에 위치한 탄광과 수출터미널인 Beira 항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선로인 Sena 철도가 홍수로 인해 2주 이상 폐쇄된 바 있음.
- Cahora Bassa 수력 발전소와 남아공을 연결하는 송전선이 손상되어 인접국으로의 전력 수출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FDI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자원개발, 운송, 통신, 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8년 약 16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 보유액은 2012년 말에는 27.7억 달러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음.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 부문, 공공 개혁 및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75억 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외채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GDP 증가로 2012년에 2008년(61.5%) 대비 8.4%p 하락한 53.1%를 기록하였음. D.S.R.도 2012년 15.5%로 2010년(32.4%)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경제 성장 및 광업 부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채 상환능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 체제 지속으로 정치 안정

- 現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은 당의 지도자이자 모잠비크 초대 대통령인 사모라 마셀(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반군세력 민족저항(Renamo)과의 내전을 평화협상으로 이끈 호아킴 치사노(Joaquim Chissano)를 거쳐, 2004년과 2009년 대선에서 아르만도 궤부자(Armando Guebuza)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집권체제를 지속하고 있음.
- 민주전선(Frelimo)은 강한 조직과 당원 기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4년 대선, 총선까지 집권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1~12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족저항을 대체할 새 정치세력으로 주목받은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역사적 정통성, 대중적 인기, 재정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는 부상하지 못하고 있음.

□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 및 부패, 민주화 정체에 대한 우려 상존

- 민주전선(Frelimo)의 1당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과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의 정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2’ 발표에서 10점 만점에 4.88점으로 167개국 가운데 102위를 기록, 2010년(99위)과 2011년(100위) 대비 하락한 수준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 심화가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

-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빈곤 감소로 연결되지 못하여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및 부정부패의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 가중의 우려가 있음.
- 정부는 빈곤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된 소득격차 해결과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부의 핵심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주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인 농업은 소규모인 데다 생산성이 낮고, 중소기업 부문도 만연한 관료주의(red tape), 열악한 기업환경 등으로 고용창출에 제약을 받고 있음.

3. 국제관계

□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독립 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가 붕괴 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방 원조공여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철도, 광업 분야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고, 가스전 발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교역, 투자, 관광, 이민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모잠비크는 그동안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남아공과 함께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짐바브웨의 경제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에 따라 1999년 및 2001년 각각 37억 달러 및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 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29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 받은 바 있으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있음.
- 2012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 지원잔액은 단기 21.2백만 달러, 중장기 5억 7천만 달러이며 이 중 730만 달러가 연체중임.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 기록은 없음.

□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

- 대규모 외채 탕감에 따른 외채부담 완화,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규모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4> 한·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34,536	40,986	44,025	합성수지, 자동차 등
수 입	6,340	23,775	66,373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정부, 모잠비크와의 협력관계 강화 추진

- 2012년 7월 모잠비크 광물자원부와 산업자원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 모잠비크를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선 경험전략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동년 기준 아프리카 우선 경험전략국은 모잠비크, 알제리, 에티오피아 3개국임.
-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마푸토(수도)에서 모잠비크 가스 공급 사업 배관망 착공식을 가졌음.
 - 가스공사는 현지 국영가스공사(ENH)와 공동으로 합자회사(ENH-KOGAS, SA)를 설립하고, 2012년 7월부터 17개월 간 가스배관(59km) 및 관리소 건설공사 완료 이후 2034년까지 20년 간 공급설비를 운영하고 천연가스를 판매하게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모잠비크를 산업·자원 협력 통상의 성공모델로 삼을 계획으로 2013년 상반기에 정부, 국내 주요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규모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제1차 한-모잠비크 산업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또한 2013년 중으로 코트라(KOTRA) 무역관을 마푸토에 신규 개설하여 현지 마케팅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 외교부는 최근 양국 정부의 경제협력 사업과 한국 대기업의 현지 진출 증대에 따라 외무 업무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2013년 상반기 중으로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공관 창설단이 현지로 출국하여 준비 중임.

□ 해외직접투자(2012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5건, 23,234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모잠비크 투자는 2011년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에는 가스제조업 및 배관 공급업, 수산물 소매업을 중심으로 총 2,318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기록하였음.

V. 종합 의견

-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652달러('12년)로 여전히 최빈국에 머물고 있긴 하나, 농업, 광업 등의 호조와 자원 부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FDI 유입 증대 등에 힘입어 연 7%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13년에도 풍부한 광물자원, 천연가스의 개발을 위한 투자 유입 지속, 수출 증대 등으로 7%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자원개발의 가속화를 기반으로 향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정치적으로는 모잠비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주전선(Frelimo)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집권층의 이권 독점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와 GDP 대비 과중한 외채 부담으로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이나, FDI 유입 규모와 양허성 차관 위주의 외채를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